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9. No. 7, pp. 48-56, 2019
e-ISSN 2586-4440
DOI : https://doi.org/10.22156/CS4SMB.2019.9.7.048

동료교수학습이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긍정심리자본 및 학습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비연구

정인숙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Effects of Nursing Students' Peer Tutoring on Self-leadership,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Learning Satisfaction : A Pilot Study

In-Sook Jung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od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동료교수학습이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긍정심리자본 및 학습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연구설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후속 연구의 실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예비연구이다. 실험처치 전, 실험군 10명, 대조군 8명으로 구성된 두 군의 일반적 특성이 동질하였고, Mann-Whitney U test에서 집단 간 변수들의 평균순위값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Z=-1.40~-.31, p=.160~.754). 실험처치인 10회의 동료교수학습 전후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영역 중 '희망'의 집단 간 순위값에 차이가 있었고(Z=-2.27, p=.023), 실험 전후, 셀프리더십과 자신감 간 및 희망과 학습만족 간 각각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49, p=.03), (r=65, p=.01). 이상의 연구결과로 동료교수학습을 활용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긍정심리자본 및 학습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본 실험설계를 적용하는 실험연구의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주제어 : 동료교수학습, 간호대학생, 셀프리더십, 긍정심리자본, 학습만족, 예비연구

Abstract This pilot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eer tutoring on self-leadership,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PPC) and learning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and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following study through identifying problems in research design. Before the experiments, there was no significant defferences confirming homogeneity of between groups which consisted with 10 and 8 subjects each among general characteristics, and also among their mean ranks by Mann-Whitney U test(Z=-1.40~-.31, p=.160~.754).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mean rank of 'hope', one of the subdomains of PPC, between groups before and after 10 times of peer tutoring as experiments(Z=-2.27, p=.023),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self-leadership and confidence, hope and learning satisfaction each before and after experiments(r=49, p=.03), (r=65, p=.01). Finally, the feasibility of experimental study applying this experimental design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eer tutoring on self-leadership, PPC and learning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was confirmed in this results.

Key Words : Peer tutoring,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Learning satisfaction, Pilot study

*Corresponding Author : In-Sook Jung(irisleejung@naver.com)
Received May 28, 2019
Revised June 20, 2019
Accepted July 20, 2019
Published July 28, 2019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활에서는 필요한 학습을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자기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다양한 도전을 통한 경험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 중 예기치 않은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극복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스스로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자기주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셀프리더십이 필요하다[1]. 특히 간호대학생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계열과 관계없이 간호학과에 입학 후 간호학 이론학과목 학습은 물론 인간의 생명 다루는 간호사로서의 준비로 임상실습과정에서 다양하고 과중한 전공학과목을 이수하여 대상자들을 위한 건강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준비해야 한다[2]. 이렇게 방대한 역할을 제한된 기간 내에 준비해야 하는 과정에서 내재된 능력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의 모든 결정에 자기주도적 태도로 임하는 셀프리더십의 발휘는 필수적이다[3]. 간호학과 신입생 대상의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은 입학동기와 리더로서의 역량 및 주관적 학교성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결과가 있어[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셀프리더십을 강화시킬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긍정심리학에 기원한 다양한 심리적 개념을 포함하는 개념인 긍정심리자본은 목표로 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활용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목표성취를 위해 인내하며 대안을 세워가려는 마음의 계획인 희망, 긍정적인 일을 지속적이고도 보편적으로 내면화시키는 낙관성 및 해결하기 힘든 문제에 직면하거나 실패로부터 극복해나갈 수 있는 탄력성[4]의 총체적인 개념인데, 간호학과 신입생의 긍정심리자본은 중간정도 이상의 수준이었지만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5], 일정기간 내에 과중한 이론과 임상학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간호대학생들에게 간호학 교육과정에서 내재된 긍정심리자본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학습만족이란 학습자들이 학습과정 중 자신에게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느끼는 감정이나 신념을 통해 스스로 판단하는 것으로 학업성취의 예측 요인이 될 수 있고, 학습성과의 지표가 될 수 있어 대학생들의 학습만족을 높일 수 있는 교육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1], 대학 자체의 교육과정을 포함함 교육제도의 혁신을 위한 노력과 아울러 다양한 교육방법들을 적용하여 학습만족을 높이기 위한 시도들이 간호학 교육과정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6].

현재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학습법 중 동료교수학습은 학습내용을 구성하여 실제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동료교수자와, 이들의 가르침을 받는 동료학습자로 이루어지는데 다양한 형태로 변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료교수자는 단순한 자기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를 가르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깊이 있는 학습을 하게 되고, 동료학습자는 실제 교수자와의 관계에서보다 의사소통이 쉬운 친구인 동료교수자로부터 학습내용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데 때로는 동료교수자와 동료학습자의 역할을 바꾸어 교대로 시행하기도 한다[7,8]. 이러한 동료교수법을 적용하여 시행한 간호대학생 대상의 조사연구나 원시실험연구들에서 동료교수학습이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능력, 셀프리더십이나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켰다[2,3,9]는 보고가 있으나, 실제 동료교수학습의 효과를 보기 위해 대조군을 두고 시행한 유사실험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료교수학습이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긍정심리자본 및 학습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유사실험연구 시행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연구 시행 전 예비연구를 통하여 실험처치의 효과나 연구설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추후 연구의 실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동료교수학습이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긍정심리자본 및 학습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유사실험연구 설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후속 연구의 실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예비연구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실험처치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을 확인한다.
- 두군 간 변수들의 처치 전후 평균과 전후평균의 차이를 조사한다.
- 처치전후 두군 간 변수평균차이의 순위 값 유의성을 조사한다.
- 처치전후 변수평균차이의 비모수상관관계를 조사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10회의 동료교수학습법이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긍정심리자본 및 학습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실험연구 시행 전, 실험처치의 효과 및 연구설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후속 연구의 실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예비연구로 진행되었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7년 7월 3일부터 7월 21일과, 2019년 1월 2일부터 1월 22일까지의 기간 동안 C도 내의 일개 대학교 간호학과 2, 3학년 중 개설된 특별과정 수강생들로, 특별과정 개설 상황에 따라 실험군과 대조군의 기간 간격을 두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실험처치의 오염을 막을 수 있었으며, 대상자는 다음 선정기준에 맞는 자이다.

· 본 연구 관련 설명을 듣고 내용 및 목적을 이해하는 자
· 본 연구에서 시행할 중재프로그램인 동료교수학습법을 수업 시 적극적으로 적용할 의사가 있는 자
· 본 연구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자
· 연구대상자는 유사한 연구가 없어 일반적인 예비연구의 대상자 수와 비교하여, 각 학기 특별과정 수강생 10명과 8명을 각각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배정하였다.

2.2.1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자료 수집 전 연구대상자들에게 C학과목 수업 중 동료교수학습법의 장점, 적용방법 및 수업진행 관련 자세한 설명과, 셀프리더십, 긍정심리자본, 학습만족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와 매 수업 중 진행할 개인별 평가, 동료평가 및 이해도 평가 시행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작성될 처치 전후 설문지와 관련 평가자료는 각 대상자의 개별부여된 고유번호로 처리하여 익명성이 유지되고, 관련 모든 자료는 연구자 이외에 누구에게도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되며,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을 알린 후, 자발적인 연구참여 서면 동의한 자에 한해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연구참여 철회 의사를 할 수 있고, 필요 시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알리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10회의 동료교수학습과, 셀프리더십, 긍정심리자본 및 학습만족 측정을 위한 설문지로 구성되었다.

2.3.1 동료교수학습

본 연구에 참여한 10명의 실험군 대상자들이 수행한 15일간 15회로 진행된 2단위의 C학과목 2시간의 수업 중 30분씩 10회에 걸쳐 동료 학생끼리 상호 교수자와 학습자가 되어 시행하는 동료교수학습이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긍정심리자본 및 학습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의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 학습 조 구성 : 연구 시작 전 사전조사를 통해 대상자들의 평균평점이 일정범위 내에서 유사한 것을 확인 후 자유롭게 2인 1조의 학습 조를 구성하여 구성된 조원 간 동료 간 의사소통에 부적절함이 없도록 하였다.

· 동료교수의 내용 : 10회의 동료교수학습은 모든 학생들이 전 시간 C학과목 수업내용을 숙지하고 동료교수학습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 동료교수자 훈련 : C학과목 담당교수자는 매 수업 직후 다음 회차 동료교수자에게 교수활동 시 핵심내용과 주의점을 요약하여 알려주었다.

· 학습과정 :
– 매회 1인의 동료교수자와 1인의 동료학습자로 구성되며, 각 구성원은 교수자 5회, 학습자 5회의 역할을 교대로 수행하였다.
– 동료교수자는 매 수업 직후 담당교수자가 제공한 동료교수지침을 토대로 다음 회 동료교수 시 동료학습자의 질문내용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필요시 상호토론을 겸할 수 있도록 시행하였다.
– 동료학습자는 동료교수학습 시 담당교수의 수업내용 중 질문사항에 대한 해답을 동료교수자로부터 얻고 필요 시 상호토론으로써 배움을 반복한다.

· 평가 : 매회의 동료교수학습 후 실험처치 시행의 강화를 위해 개인별 평가와 동료평가 및 이해도 평가를 시행하여 C학과목 성취도평가에 포함시켰으나 본 연구에 적용하지는 않았다.

2.3.2 실험 전후 설문

· 셀프리더십(Self leadership)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은 Houghton 등(2012)이 개발한 ASLQ(Abbreviat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를 박지윤(2017)이 번역하여 사용한 9문항 Likert 5점척도의 도구로 박지윤(2017)의 연구[1]에서 Cronbach's α는 .78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65이었다.

· 긍정심리자본(Positive Psycological Capital)

긍정심리자본은 유현숙(2004)이 개발[10]하고 박지윤(2017)이 사용한 17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자신감, 희망, 낙관성 및 탄력성의 하위영역을 측정하는 도구로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이 많음을 의미한다. 박지윤(2017)의 연구[1]에서 긍정심리자본 전체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2이었다.

· 학습만족(Learning satisfaction)

학습만족은 최석봉(2012)이 사용한 도구를 박지윤(2017)이 당시의 연구맥락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총 7문항 Likert 5점 척도로 개발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만족이 높음을 의미하고, 박지윤(2017)의 연구[1]에서 Cronbach's α는 .90,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0 이었다.

· 이상의 셀프리더십, 긍정심리자본 및 학습만족 측정문항에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문항을 추가한 총 43문항 설문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2이었다.

2.4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은 2017년 7월 3일부터 7월 21일까지와 2019년 1월 2일부터 1월 22일까지 두 기간 동안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에 맞추어 시행하였다. 2017년과 2019년 두 기간에 모집된 대상자 10명과 8명을 각각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배정하였고,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 43문항의 설문도구로 실험군에게는 적용된 15회의 수업 중 시행된 10회의 동료교수학습 전후, 대조군은 1회와 15회 각각 수업전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소수의 표본으로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없으므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으로 비모수검정을 시행하였다.

·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 전 일반적특성과 각 변수들의 평균의 동질성은 X^2검정으로, 실험 전 두 군간 변수평균의 순위 값과 유의성 검증 및 동료교수학습이 셀프리더십, 긍정긍정심리자본 및 학습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Mann-Whitney U 검정과 Wilcoxon 부호순위 검정을 시행하였다.

· 실험군의 처치 전후 셀프리더십, 긍정긍정심리자본의 하위영역과 및 학습만족의 비모수 상관계수는 Spearman's rho로 구하였다.

3. 연구결과

3.1 실험처치 전 두 군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Table 1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교차분석을 시행한 결과로, 실험군과 대조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247~.610). 평균연령은 24.0세이었고, 종교는 없는 경우가 72.2%, 성격은 내향적과 외향적의 중간인 경우가 50%, 취업을 고려한 간호학과 입학이 50%, 주관적 학교성적은 낮은 경우가 50%, 토론선호도는 보통인 경우가 55.6%로 가장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omogeneity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18)

Variables	Categories	Exp**	Cont***	x^2	p
		n(%)			
Age(yr)	M(SD)*	23.2 (1.55)*	25.0 (1.51)*	7.88	.247
Religion	yes	2(20)	3(37.5)	.68	.382
	none	8(80)	5(62.5)		
Personality type	extrovert	3(30)	3(37.5)	2.92	.403
	middle	5(50)	4(50.0)		
	introverted	2(20)	1(12.5)		
Motive of admission	to match grade	2(20)	2(25.0)	.99	.610
	to fit apptitude	2(20)	3(37.5)		
	consider Job opportunity	6(60)	3(37.5)		
School life satisfaction	Low	0(0.0)	1(12.5)	1.40	.498
	Medium	9(90.0)	6(75.0)		
	High	1(10.0)	1(12.5)		
School grades	Low	4(40.0)	5(62,5)	2.93	.232
	Medium	6(60.0)	2(25.0)		
	High	0(0.0)	1(12.5)		
Discussion preference	Low	5(50.0)	3(37.5)	.28	.596
	Medium	5(50.0)	5(62.5)		
	High	0(0.0)	0(0.0)		

M(SD)* : mean(standard deviation)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3.2 실험처치 전 두 군간 변수들의 평균순위값

Table 2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처치 전 각 변수들의 평균의 평균순위값의 동질성을 Mann-Whitney U test로 검정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이 동질한 범위 내에 있었다(Z=-1.40~-.31, p=.160~.754).

Table 2. Pre-experimental homogeneity on mean ranks of the variables between two groups N=(18)

	Self-leadership		PPC*		Confidence		Hope		Optimistic		Resilience		Learning satisfaction	
	Mean rank	Total rank	Mean rank	Total rank	Mean rank	Total rank	Mean rank	Total rank	Mean rank	Total rank	Mean rank	Total rank	Mean rank	Total rank
Exp**	9.94	79.50	10.44	83.50	8.75	70.00	10.25	82.00	11.44	91.50	11.00	88.00	11.25	90.00
Cont***	9.15	91.50	8.75	87.50	10.10	101.00	8.90	89.00	7.95	79.50	8.30	83.00	8.10	81.00
Mann-Whitney U	36.50		32.50		34.00		34.00		24.50		28.00		26.00	
Wilcoxon W	91.50		87.50		70.00		89.00		79.50		83.00		81.00	
Z	-.31		-.67		-.54		-.54		-1.40		-1.08		-1.26	
p	.754		.504		.588		.591		.160		.281		.206	

*PPC: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3.3 두 군간 변수들의 실험처치 전후평균과 전후 평균의 차이

5점 척도로 구성된 셀프리더십, 긍정심리자본 및 긍정심리자본 하위영역변수와 학습만족의 실험전후 평균점수는 모두 3점 이상이었고, 실험군의 실험처치 후 희망의 평균은 4.16±.072로 가장 높았다. 각 변수들의 실험 전후 평균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The means and differences between before and after experiment of two group N=(18)

Variables	Total subjects (n=18)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pre*	post**	differences	pre*	post**	differences
		M(SD)***			M(SD)***		
Self-leadership	3.51(.45)	3.47(.44)	3.76(.61)	0.29(.40)	3.56(.48)	3.81(.45)	0.25(.22)
PPC****	3.57(.42)	3.51(.41)	3.88(.52)	0.38(.68)	3.65(.45)	3.60(.63)	-0.04(.21)
Confidence	3.58(.59)	3.64(.49)	3.82(.57)	0.18(.82)	3.50(.73)	3.68(.70)	0.18(.25)
Hope	3.83(.60)	3.76(.57)	4.16(.72)	0.40(.83)	3.93(.66)	3.70(.58)	-0.23(.20)
Optimistic	3.35(.54)	3.20(.45)	3.77(.55)	0.57(.79)	3.54(.62)	3.50(.62)	-0.04(.58)
Resilience	3.39(.60)	3.25(.63)	3.70(.73)	0.45(.86)	3.56(.53)	3.47(1.08)	-0.09(.82)
Learning satisfaction	3.24(.62)	3.04(.64)	3.56(.66)	0.51(.71)	3.48(.53)	3.48(.42)	0.00(.35)

* pre-experimental, ** post-experimental, *** Mean(Standard Deviation) ****PPC: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3.4 실험처치 전후 두 군간 변수평균차이의 순위값 유의성 검증

Table 4에서 실험처치 전후 각 변수들의 평균값 차이의 Mann-Whitney U test로 검정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영역 중 희망의 평균차이값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에서 Mann-Whitney U는 15.000, Wilcoxon W는 51.000로 나타났다(Z=-2.27, p=.023).

3.5 두 군간 실험처치 전후 변수평균차이의 비모수 상관관계

Table 5에서 실험전후 변수평균값 차이의 비모수 상관분석결과 셀프리더십평균의 차이값과 자신감 평균의 차이값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r=490, p=.03), 긍정심리자본 중 희망 평균의 차이값과 학습만족 평균의 차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r=651, p=.01).

Table 4. The significance of differences in mean ranks between two groups before and after experiment N=(18)

Classification	Self-leadership		PPC*		Confidence		Hope		Optimistic		Resilience		Learning satisfaction	
	Mean rank	Total rank	Mean rank	Total rank	Mean rank	Total rank	Mean rank	Total rank	Mean rank	Total rank	Mean rank	Total rank	Mean rank	Total rank
Exp**	9.06	72.50	7.63	61.00	10.94	87.50	6.38	51.00	7.50	60.00	8.19	65.50	7.19	57.50
Cont***	9.85	98.50	11.00	110.00	8.35	83.50	12.00	120.00	11.10	111.00	10.55	105.50	11.35	113.50
Mann-Whitney U	36.50		25.00		28.50		15.00		24.00		29.50		21.50	
Wilcoxon W	72.50		61.00		83.50		51.00		60.00		65.50		57.50	
Z	-.31		-1.34		-1.06		-2.27		-1.52		-.96		-1.66	
p	.753		.181		.290		.023		.128		.339		.097	

*PPC: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Table 5. Nonparametric correlation of mean differences before and after treatment N=(18)

	Self-leadership	Confidence	Hope	Optimistic	Resilience
Confidence	.490 (.03)				
Hope	.204 (,42)	.125 (.62)			
Optimistic	.175 (,49)	-.209(.40)	-.152 (.55)		
Resilience	.291 (.24)	.074 (.77)	.412 (.09)	.525 (.32)	
Learning satisfaction	.096 (.71)	.335 (.18)	.651 (.01)	-.185 (.46)	.272 (.28)

p =.05

4. 논 의

동료교수학습이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긍정심리자본 및 학습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본 예비연구에서 실험처치 전 카이제곱검정과 비모수검정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및 각 변수들의 평균순위값의 동질성 검증 후 두 군이 동질한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상자 수가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아 산출된 기술통계결과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가 없어 일부 변수의 평균점수와 비모수검정 결과를 모수검정을 적용한 연구결과들과 비교한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의 처치 전 실험군과 대조군 전체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은 3.51±0.45점이었는데, 이는 본 연구와 다른 도구이지만 5점 척도의 도구를 사용한 간호학과 신입생 대상의 연구[11]에서의 셀프리더십 3.4±0.43이나 동료교수학습을 적용한 원시실험연구[2]에서의 3.44±0.33점보다 약간 높은 결과였고, 간호학과 2학년 대상의 연구결과[3]에서의 3.50±0.40과는유사한 결과였다. 셀프리더십은 학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는데[11], 본 연구 대상자들의 경우 2, 3년간 간호학 교육과정 중 학업이수를 위한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과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과정 중 습득되고 발휘된 셀프리더십의 결과로 셀프리더십의 평균이 신입생 대상의 연구결과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겠고, 이러한 맥락에서 간호학과 입학 시부터 학년이 올라감에 따른 셀프리더십의 변화를 조사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동료교수학습 적용 후 실험군의 셀프리더십이 3.47±0.44점에서 3.76±0.61로 증가하였지만 대조군도 3.56±0.48점에서 3.81±0.45점으로 증가되었고, 처치 전후 두 군간 평균순위값의 비모수검정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료교수학습을 적용한 원시실험연구에서 동료교수학습이 셀프리더십의 하위영역 중 인지적 전략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3]나 동료교수학습 후 셀프리더십이 증가하였다[2]는 결과와 다른 결과로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동료교수학습의 영향을 규명하는 유사실험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의 처치 전 실험군과 대조군 전체 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의 평균은 3.57±0.42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간호학과 신입생대상의 연구[5]에서의 3.67±0.52점이나, 간호대학생 대상 연구[12]의 3.68점보다는 낮았으나, 5점 척도의 다른 도구를 사용한 간호대학생 대상의 조사연구들[13,14]에서의 3.53±0.47점과 유사하였고, 3.42±0.43점보다는 높은 결과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영역 중 '희망'의 평균이 3.83±0.60점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간호대학 신입생 대상의 연구[5], 자연계열대학생의 연구나[15], 간호대학생 대상의 연구결과[14]와 같은 결과였고,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 중에서 자신감 점수가 가장 높았다는 연구결과[12,16]와는 다른 결과로 대상자 집단의 차이에 따른 결과라고 추론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들에게 급변하는 간호의 긍정적 전망 등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함으로써 긍정심리자본의 강화가 필요하다. 긍정심리자본은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개발이 가능한 속성들로 이루어진 것이므로[1], 간호대학생들이 과중한 이론과 임상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 뿐 아니라 전문간호인으로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영역 각각의 모든 속성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실험처치인 동료교수학습 적용 전 '희망'의 점수의 비교에서 대조군이 실험군보다 높았으나 처치 후에는 실험군의 희망이 대조군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처치 전후 두 군간 평균순위값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p=.023) 동료교수학습이 실험군의 학습과정에서 긍정심리자본 중 어떤 일의 성취를 위해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인 '희망'을 증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처치 전후 실험군의 긍정심리자본 하위영역 중 '희망' 이외에도 자신감, 낙관성, 탄력성 모든 변수의 평균이 증가되었지만 대조군과의 비교를 통한 평균순위값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료교수학습을 적용한 학과목 이수 후 자신감이나 자기효능감 중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는 결과[9]와는 다른 결과로 동료교수학습이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영역인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규명을 위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자신의 목표달성을 위해 의지를 가지고 해결점을 찾아가는 마음인 '희망'이 본 연구대상자들인 간호대학생들의 긍정심리자본 중 높은 것은 그들이 이수해야 할 학업에 대한 과중한 부담이나 대학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요소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4].

본 연구에서 실험군에 대한 동료교수학습 전 두 군 전체 대상자의 학습만족은 3.24±0.62점이었다. 이는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에서 학습만족 3.40±0.79점, 간호학과 신입생에 대한 조사연구[5]에서 학습만족이 3.53±0.61점인 결과와 같은 5점 척도의 다른 도구를 사용한 모바일러닝 학습자 대상의 연구[17]에서의 3.76±0.83점보다 낮은 결과였다. 대조군의 경우 학습만족의 변화가 없었으나 실험군은 동료교수학습 전후 각각 3.04±0.64점과 3.56±0.66점으로 학습만족이 향상되었다. 이는 비록 평균순위값의 비모수검정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나 5점 척도에서 평균이 0.5점 이상 상승하였으므로 대상자 수를 증가시킨 유사실험연구를 통해 동료교수학습의 학습만족에 대한 효과 규명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간호대학생 대상으로 시행한 원시실험연구 결과에서 동료교수학습이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동료교수학습법의 적용으로 학습이 좀 더 효과적이었고 학생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연구결과[3]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학습만족은 학습의 질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고 학업성취를 예측할 수 있는 변수이므로, 학습만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18], 학습제도나 학습관련자원인 교육과정, 교수자 강의의 질 향상 관련 방안의 연구는 물론, 학습자의 심리자본, 주관적 학교성적과 학교생활만족도가 학습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이들 학습자 관련 요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5].

본 연구에서 셀프리더십과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영역인 자신감 간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는데(r=490, p=.03),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 간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연구결과[11]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셀프리더십이 있는 경우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해나가는 과정 중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킴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된다[1]는 맥락에서 간호학 교육과정에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자신감을 개발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결과 긍정심리자본 중 '희망'과 학습만족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r=651, p=.01). 이는 긍정심리자본 중 희망과 학습만족을 비교한 연구결과는 아니지만, 학습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긍정심리자본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는 결과와 심리자본과 학습만족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5], 긍정심리자본과 학업성취도 간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연구[14] 및 자기효능감이 학

습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는 연구결과[17]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긍정심리자본이 창의적인 성향이나 학습에의 지향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15]나 긍정심리자본과 간호학생의 역량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연구결과[16]에 비추어 간호학과 입학 후 과중한 학업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간호대학생들의 학습만족을 높이기 위해 긍정심리자본과의 관련성에 대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동료교수학습이 긍정심리자본과 학습만족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대상자 수를 확대한 유사실험연구를 시행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동료교수학습이 셀프리더십, 긍정심리자본 및 학습만족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는 후속 유사실험설계의 가능성 파악을 위한 예비연구이다.

2인 1조로 구성되어 교대로 동료교수와 동료학생 역할을 30분간 10회 시행한 동료교수학습은 실험군의 긍정심리자본 중 '희망'을 유의하게 증가시켰고, '희망'과 학습만족 간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동료교수학습은 실험군의 학습만족을 증가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동료교수학습이 긍정심리자본과 학습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상자 수를 확대한 유사실험연구를 시행하는 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본 연구에서처럼 실험군과 대조군 간 시간 간격을 둔 유사실험연구 진행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예비연구의 결과는 소수의 표본으로 비모수검정을 시행한 예비연구로 연구결과의 유의성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1] J. Y. Park. (2017) *Prediction of Students' Self-leadership on Learning Satisfaction: Focused on Mediating Efects of Positve Psychological Capital and Learning Flow.*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 I. S. Jung. (2018). Convergence effects of collaborative peer tutoring on communication ability and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10),* 533-540. DOI : 10.15207/JKCS.2018.9.10.533

[3] I. S. Jung. (2018). Effects of classwide peer tutoring on academic achievement, self-leadership and interpersonal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4),* 55-62. DOI : 10.22156/CS4SMB.2018.8.4.055

[4] J. B. Avey, F. Luthans, R. M. Smith & N. F. Palme. (2010). Impa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employee well-being over time.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15(1),* 17-28. DOI : 10.1037/a0016998.

[5] I. S. Jung. (2019). Convergence effects of psychological capital on learning satisfaction of nursing freshmen.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2),* 55-64. DOI : 10.2156/CS4SMB.2019.9.2.064

[6] J. H. Kim. (2017).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Enhancement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7] Y. H. Kim, I. S. Kweon, K. D. Kim, K. M. Park, H. S. Park, H. S. So, W. S. Lee, K. s. Chang, B. R. Jeong & E. H. Choi. (2016).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 Cases in nursing education.* Seoul : Fornurse.

[8] K. Iwata, D. S. Furmedge, A. Sturrock & D. Gill. (2014). Do peer-tutorsperformbetter in examinations? An analysis of medicalschool final examination results. *Medical Education. 48(7),* 698-704. DOI : 10.1111/medu.12475

[9] H. K. Cho & I. S. Jung. (2018). A study on the communication ability, general self-efficacy, social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freshmen.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3),* 25-32. DOI : 10.22156/CS4SMB.2018.8.3.025

[10] H. S. Yoo. (2004). *Empirical Study on Women's Human, Social and Psychological Capital : Focusing on Daejeon City.* Doctoral dissertation. Daejeon University, Daejeon.

[11] I. S. Jung. (2018). A Study on related factors of nursing students' self-efficacy, self-leadership and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5),* 51-58. DOI : 10.22156/CS4SMB.2018.8.5.051

[12] S. Y. Lee & K. H. Lee. (2018). Convergence study of the factors affecting positive psychology capital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5),* 269-279. DOI : 10.15207/JKCS.2018.9.5.269

[13] Y. M. Kim. (2016).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Emotional Intellig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7),* 112-122.
DOI : 10.5762/KAIS.2016.17.7.112

[14] E. Jeong & M. R. Jung. (2018).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Achievement in Nursing Student on Gri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9),* 309-317.
DOI :10.14400/JDC.2018.16.9.309

[15] D. H. Ryo. (2015). *Investigat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sychological Capital , Creative Personality, Learning Orientation, and Perceived Inovative Behavior.*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6] R. X. Liao & Y. H. Liu. (2016). The impact of structural empowerment and psychologicalcapital on competence among Chinese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A questionnaire survey. *Nurse Education Today. Jan(36)*, 31-36.
DOI : 10.1016/j.nedt.2015.07.003. Epub 2015 Jul 13.

[17] J. Y. Lee & J. R. Kim. (2013). Analysis on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Learners' Perceived Usefulness, Learner Satisfaction and Related Factors in Mobile Learning in Universities. *Journal of Korean Education, 40(1),* 49-79.
http://www.kedi.re.kr

[18] J. C. Lee. (2014).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Adult Learner among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elf-directed Learning, Major Commitment, and Happiness: Focusing on University Students. *Andragogy Today :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7(4),* 85-113.
UCI : G704-000695.2014.17.4.003

정 인 숙(In-Sook Jung) [정회원]

· 1988년 3월 : Graduate School of AUP(Master of Science in Nursing)
· 2004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아동간호, 기초간호과학, 간호교육방법
· E-Mail : irisleejung@naver.com